

청렴한 전북 만드는 '세가지 컬러'

도·도내 7개 공공기관,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하양·파랑·초록' 테마로 청렴문화행사 개최

전북도는 도내 7개 공공기관이 구성한 전북 공공기관 청렴클러스터협의회 주관으로 '제2회 전북 청렴누리 문화제'를 9월 5일(화)부터 7일(목)까지 3일간 농업진흥청 대강당, 전북도청 대강당, 한옥마을 등 도내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누리 문화제는 올해 두 번째로 농업진흥청이 주축이 되어 7개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청렴한 당신이 깨끗한 세상을 만듭니다"라는 주제로 White(투명하게)·Blue(맑게)·Green(깨끗하게) 3가지 컬러의 테마로 다채로운 청렴문화행사를 진행한다. White(투명하게)테마는 1일차(5일)

로 농촌진흥청 대강당에서 개최식 후 청렴연수원 주관 청렴 실천 토크, 역할극, 청렴뮤지컬 등 청렴콘서트를 개최한다. Blue(맑게)테마는 2일차(6일)로 전북도청 대강당에서 청렴특강, 한옥마을에서 길거리 청렴연극, 국민연금공단에서 청렴골든벨,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청렴영화 상영 및 클린건강상당,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인문학특강 및 청렴부채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Green(깨끗하게)테마는 3일차(7일)로 혁신도시 양현고등학교에서 청소년 청렴세미나, 한옥마을에서 청렴팬

페인 등이 개최된다. '전북 청렴누리 문화제'는 지난 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전라북도가 주축이 되어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청렴'이라는 무거운 주제의 행사를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로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은바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반부패·청렴활동을 공공기관 간 협업으로 추진하여 도내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전라북도, 청렴한 전라북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년 청렴세미나, 한옥마을에서 청렴팬 페인 등이 개최된다. '전북 청렴누리 문화제'는 지난 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전라북도가 주축이 되어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청렴'이라는 무거운 주제의 행사를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로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은바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반부패·청렴활동을 공공기관 간 협업으로 추진하여 도내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전라북도, 청렴한 전라북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군산시는 지난달 31일 전 부서 주무계장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에 총력을 기울였다.



도·시군 공무원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지난 1일 임실군 군민체육회관에서는 송하진 도지사, 황현 도의회 의장, 최일호 전북연맹 위원장, 시·군 기관장 및 9개 도·시·군 공무원 노사 관계자 1,300여명이 참석하여 제9회 도·시·군 공무원 노사 한마음체육대회를 가졌다.

전북도, 올 가을 책으로 소통한다

Book소리 한마당 개최
가을엽서 띄우기 등
독서문화체험행사 다채

전북도청도서관과 전북작은도서관운영협의회는 9월1일부터 3일까지 전주 경기전에서 열리는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에 참가해 전라북도 작은도서관을 홍보하고, 도민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우선 '꿈과 미래가 숨쉬는 작은도서관'이라는 주제로 운영된 전라북도작은도서관 홍보부스에서는 도내 도서관 지도, 독서문화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내가 있었고, 시군 작은도서관 홍보 리플렛과 시화, 뜨개질, 한지 공예, 종이접기, 비누공예 등 독서문화프로그램 성과물도 함께 전시된다. 독서문화 체험부스는 3개 테마로 운영, 캘리그래피 가을엽서 띄우기 부스에서는 공부하느라 잠이 부족한 아들·딸에게, 바쁜 일상으로 소원해진 친구에게, 아근에 지친 남편과 아내에게, 늘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님에게 손으로 정성들여 쓴 엽서를 가을 바람과 함께 띄워 보냈다. 이 부스에서는 특별히 제작된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우표와 전주우체국의 협조로 요즘 보기 힘든 빨간 예쁜 우체통을 비치했다. 실랑 실랑 불어라 부채비빔 부스에서는 전주 한지와 냇킨 등을 활용한 한지 부채를 다양한 형태로 꾸미고, 과자 모양 클레이 비누 만들기 체험 부스는 어린이들의 큰 호응이 예상된다. 도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자간 상호 정보 공유 등 네트워크를 강화해 작은도서관이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15일까지 소 사육농가 대상 축산물이력제 일제점검 단속

전북도는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2주간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출생신고, 귀표 부착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 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 관리, 필요시 그 이력정보의 추적을 통해 방역 등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축산물이력제 점검단속은 일부 농가에서 송아지 출생신고 고의 지연으로 월령(月齡)을 속여 가축 시장에 거래하는 등 사육단계 이력 관리에 미흡한 점이 일부 지적됨에 따라, 송아지 출생시 농가 스스로 귀표를 장착하는 '귀표 자가부착 지정농가' 182호를 대상으로 사육단계 이력관리 준수여부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지난 2분기에 이력관리 미흡 추경농가 142호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출생신고 지연 등 71농가를 적발,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처분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향후에도 분기별 1회(년 4회) 소 사육농가 일제 및 귀표 부착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현장점검 할 계획임으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일벌백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문동신 군산시장 책임 통감 강도 높은 자정노력 천명

최근 잇따른 공직기강 해이문제와 관련,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의 사과성명에 이어 군산시 책임통감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극단의 자정노력을 펼치고 있어 공직사회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문동신 군산시장은 발전전략회의 자리에서 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직사회에 극단의 자정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일벌백계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이에 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느슨해진 공직기강에 책임이 있다며 집중 감찰을 통해 근무지 무단이탈, 직무 불성실 등을 적발, 현재 총 7명에 대하여 중징계 및 경징계 조치하고 관용처량 사적사용, 근무불성실 등 사소한 공직 위반사항이 적발된 다수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산=장현기 기자

전북도 회계 투명성·효율성 제고 최선

업무담당자 맞춤형 교육 실시 사례위주 현장감 있는 교육

전북도는 9월 4일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에서 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2017년 회계실무 맞춤형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전북도 실과소 및 시군의 회계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교육과목은 회계 및 지출실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전산실무, 청탁금지법 등으로 금번 교육을 통해 지방회계관련 법령,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이해함으로써 지방 회계업무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회계 분야에 근무한 강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현장에서 겪은 다양한 사례위주의 현장감 있는 교육으로 복잡한 회계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회계교육을 통해 회계질서의 안정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